

특별취재

원광대-중국 서주의과대학 MOU

원광대학교는 중국 강소성 서주의과대학과 상호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날 말 김도중 총장이 직접 서주의과대학을 방문해 체결한 이번 MOU는 상호 학생교류 및 공동교육과정 진행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의 계기로 양교는 2017년부터 임상학과와 실습 학년을 대상으로 단기 병원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주의과대학 학생들이 원광대의과대학 분과과정 1년(분과 3학년), 석사 2년의 수학을 통해 각각 수료증과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추진하고, 향후 중국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재활의학 분야의 학제학과 설립 운영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교는 의과대학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향후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아시아 의학의 새로운 지적 발전의 기회를 가져오자"고 말했다.

한편, 서주의과대학 병원이 있는 서주시는 강소성, 산동성, 안휘성, 하남성 등 중국의 4개 성이 교차하는 지역에 있어 인구가 1억 4천만여 명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환자군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교의 활발한 의료분야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인권진단 실시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5일 부청문관(경감 권혁기),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인권진단은 인권보호 시각에서 관행적 인권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개선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인권보호 분위기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2회 실시하고 있다.

인권진단 시 사회적약자의 차별요소, 불편 사항, 관행적 인권침해 행위 등을 파악하여 시설 및 제도들의 개선을 추진하고, 세밀한 점검을 위해 인권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였다.

중앙지구대 외부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이 확보되어 있고, 일반인의 주차는 금지 되고 있으며 출입로는 계단 이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진 길과 접지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지구대장 김용대 경감은 "민원인과 접촉이 가장 많은 지구대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시설로 인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하려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보건소 퇴직공무원 대상 '구급차타자 건강교실'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예방관리를 위해 시청 대강당에서 퇴직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구급차타자 건강교실'을 5일 운영했다.

'구급차타자'란 뇌졸중 응급증상을 겪고 간절하게 전달하기 위한 5행시로, '구' 구토와 삼한두통, '급' 급하게 손을 못 뻗을 때, '차' 차를 자제로 못 서있을 때, '타' 타타타 발음이 안될 때, '자' 자기 앞에 있는 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구급차타자'로 인한 뇌졸중 증상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날 건강교실은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 전문의를 초빙해 '뇌졸중! 시간이 생명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뇌졸중의 이해와 위험요인, 응급상호 및 대처방법, 정지적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의 중요성, 금연·절주·신체활동·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행태 보건소장은 "퇴직이후 건강관리의 첫걸음으로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에 관심을 고취시키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정곤기자

함열읍 학선마을 그리심삼기도원 사업주 간

태양광시설공사 분쟁 익산시 중재

익산시 함열읍 학선마을 그리심삼기도원과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사업주 간의 분쟁이 익산시의 중재로 해결됐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그리심삼기도원 측 관계자는 정한을 시정할 경우 분쟁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8월 중순 태양광발전시설공사가 착공되면서 인접해 있는 그리심삼기도원과 사업주 간의 분쟁이 시작됐다.

익산시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주 측의 권리주장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기도원 측과의 분쟁은 급기야 법

정다툼으로 치달고 말았다. 기도원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시작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연계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전주감정청정 군산지청에 이해관계인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기도원은 탈북정착민이 거주하면서 표고버섯재배사를 운영하며 정착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과 함께 수입창출원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를 알게 된 정한을 시장은 "법보다 사람관계가 우선이다"는 시정철학을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하며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이 앞장서 한달 동안의 다각적인 중재활동이 이뤄졌으며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법싸다툼까지 이어지지 않게 했다.

정한을 시장은 "양 측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무엇보다 시민들을 우선시키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경찰서, 기관장 참석 치안협의회 개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앞서 범죄예방·약자보호·교통안전 등 3분야 8건 안건 선정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14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군산시청에서 5일 개최했다.

이번 치안협의회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범죄예방,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3분야에서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범죄예방 분야는 차량관측용 CCTV 10대 설치, 방범시설물인 Sdar(올라) 표지봉 설치 등이다.

또 약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 아카데미 설립, 귀기밀 여성 안전을 위한 Mirror(미러) 시트 부착 사업을, 교통안전 분야로는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감소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와 스쿨존 신규 지정 및 정비사업 등을

상정·의결했다. 군산경찰은 지난 5월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 8건 중 시립 도서관 옆 소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5대 설치, 미용동 대명 아파트 등 8개소에 가로등 신설, 도심 소공원 화장실 4개소에 벽화화 그리고 비상벨 87대 설치하는 등 체감치안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장지구 내 6개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사고 위험성을 줄였다.

특히 4대 사회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부착(시내버스 116대, 어린이집 차량 27대)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자율방범대 차량 8대 예산을 반영해 취약지역에 야간 순찰을 병행하여 협력치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역 내 112신고사건은 1일 평균 24건 감소했으며, 5대 범죄 발생은 22%감소한 결과를 도출했다.

김동봉 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장들과 협력단체장들의 솔선수범에 감사하다"며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업과 참여가 중요하고, 이번 치안협의회를 통해 문자법 범죄 추방, 효율적인 치안인프라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새만금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 8일 개최

(재)군산시 걷기연맹이 주관하는 '제7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가 오는 8일 새만금 비응공원에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부안 새만금 전시관을 돌아오는 총 66km 코스로 펼쳐진다.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는 그랜드슬램대회(544km) 마지막 관문으로서 국제걷기연맹과 대한걷기연맹이 공인하는 4개 대회 중 하나로, 이 대회코스를 완주해야만 한국걷기그랜드슬램여객라는 공인인증을 얻을 수 있다.

그랜드슬램대회는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를 포함하여 원주의 한국 100km 걷기대회, 제주의 250km 위 킹그랑프리카피대회, 울산의 128km 웰린지 걷기대회가 있다.

이번 대회 접수는 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새만금걷기대회운영위원회 전화(070-7721-1061)

세계최장 방조제, 바다위를 걷는-

6.5Km, 13Km, 33Km, 66Km

제 7회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

2016. 10. 8 [토]

행사장 비응공원

| 식전행사 | 출발 | 접수기간 |
|-----------|-----|------------------|
| 9시 [경풍추침] | 10시 | 9월 5일 ~ 10월 7일까지 |

참가신청 TEL 070-7721-1061 FAX 063) 466-1062 www.gswalking.com

또는 홈페이지(www.gswalking.co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군산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가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유일의 바다 위 걷기대회는 명성을 실감하게 된다"며 "66km 코스를 걸어야 하는 만큼 힘이 들기도 하지만 성취감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대회"라며 포부를 밝혔다.

익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대응 총력

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발 빠른 대응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산림병해충 예찰직업을 통해 함열읍 함산리 임야에서 재선충병 의심 소나무 5주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난 9월 21일 검경의뢰 한 결과 9월 28일 소나무 3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검경 결과 9월 29일 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생현장 주변에 띠를 둘러 통제구역 설정 및 인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긴급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소나무 이동제한 긴급조치 및 고사

목 정밀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재선충 확산을 방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익산시 함열읍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중앙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감염이동 역할조사와 방제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확산속도가 빨라진다. 죽어가는 소나무·해송·잣나무가 발견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 익산시 산림공원과 859-5888)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을 보유하고 있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성충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건강한 나무의 수피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재선충이 나무줄기로 침입, 단기간에 증식하여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약제가 없는 무서운 병이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 익산 인근 군산시를 비롯 전국 100여 지자체에서 발생되어 주변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익산시도 2007년 함열읍 다송리 23번 국도변 임야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나 조기방제가 완료되어 2009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학교병원, 교직원 국내 테마 여행

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환자와 고객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원광대학교병원이 교직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교직원들 간 소통과 배려, 공감과 화합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6년 국내 테마 여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7일 1차 2개조 출발을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4차에 걸쳐 8개 조로 편성된 테마 여행팀은 자유의사로 각 조에 참가 선정 한 장소로 여행을 다녀오게 된다.

원광대학교병원은 건강한 직장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테마 여행은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테마여행 감상담 발표회 사진전 등을 개최, 포상을 하는 등 직원들의 공감을 할링 해 간다는 계획이다.

병원의 지원 하에 함께하고픈 직원들간 팀을 편성, 자신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여행 계획을 세워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원광대병원 직원 테마 여행은 지난해 첫 시행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은 환자, 보호자 및 고객 중심 경영을 지향해 나가면서도 내부고객, 즉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특히 정신적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경석 원광대병원 교육연구부장은 "국내 테마 여행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근무 환경을 벗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만을 돌아보고 직원들간 정서적 교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직원들의 호응도도 좋아 앞으로도 편안하면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시행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엄마랑 아가랑 브레인 트레이닝 운영 '호응'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3세 이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엄마랑 아가랑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기 성장발달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인지·언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의 시기는 감각경험을 통합하고 운동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단계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을 통해 아동이 습득하는 단어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드림스타트는 영아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탐색, 공간탐색, 관계형성 등 모(母)와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으로 인지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은 "영아의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연령별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오감활동을 통한 유아의 인지·감각자극으로 심리안정과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 오감특목 상상놀이, 부모와 유아가 함께하는 교육중재, 동화구연과 전래놀이로 하나 되는 어울마당, 모-아 애착진진 등 영아(아) 모(母)와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100세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목표로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과 각종 축제 및 행사를 통해 군산시 알리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수도권 상단농부 교육센터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수 도록 예비 귀농귀촌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귀농귀촌 정책 설명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운영방법, 군산시 문화관광해설, 군산쌀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김성원 농정과장은 군산시 농업현황 및 전망을 소개하고 군산시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안내했다.

귀농귀촌협의회 김동우 국장은 귀농

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대상자로, 창업 자금의 신청부터 진행과정 및 융자금 지원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귀농귀촌인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또 별다른 경험 없이 귀농귀촌을 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귀농귀촌협의회 고경자 감사의 '군산살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수도권과 재배기술 강의는 군산 쌀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 역세권인 남대문로에 소재한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집중상담 및 홍보, 교육 등 귀농귀촌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